

광주은행, 여자 양궁팀 창단 움직임...안산 등 영입 계획

“지역출신 선수, 타지역에 빼앗길 수 없다” 공감대 형성

광주시청 양궁팀, 조례로 선수 연봉 1억원 이상 지급 못해

광주은행이 양궁팀 창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광주은행과 지역 양궁계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양궁팀 창단 계획을 갖고 감독과 선수 영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양궁팀 창단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은 지난해 7월 열린 2020도쿄올림픽에서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에 이어 2021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또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린 양궁월드컵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안산은 광주문산초교와 광주체육중·고교를 거쳐 현재 광주여대에 재학 중이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안산의 거취가 구두로 논의됐으며 “지역출신의 세계적 선수를 타 지역으로 빼앗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시청 양궁팀은 조례 등의 규정으로 인해 선수의 연봉을 1억원 이상 지급할 수 없어 기업팀 창단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으며 역도팀은 선수 부족 등으로 광주시체육회 등에 육성을 의뢰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양궁팀 창단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 양궁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지역의 선수가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팀 창단과 맞물리면 광주가 양궁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는 기보배 등이 있는 광주시청 여자팀과 국가대표 이승윤 중심의 남구청 남자팀이 창단돼 활약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전웅태·정진화, 근대5종 세계선수권 남자 계주 금메달

두 선수가 짝 이뤄 세계선수권 우승한 건 처음



한국 근대5종 간판 전웅태(광주광역시청)와 정진화(한국도지주택공사)가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땀다.

전웅태-정진화는 24일(현지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최된 2022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

경기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427점을 기록, 이집트의 아메드 하메드-에슬람 하마드(1419점)를 제치고 우승했다.

전웅태는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남자부 동메달로, 한국 근대5종에 첫 올림픽

을 안긴 간판이다.

정진화는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개인전 금메달을 땀고, 도쿄올림픽에선 4위를 차지했다.

전웅태는 2016-2017년, 정진화는 2012년에 다른 선수와 짝을 이뤄 우승한 적이 있으나, 둘이 함께 우승한 건 처음이다.

펜싱랭킹라운드에서 37등을 올린 선두로 나선 전웅태-정진화는 선수 2명이 100m씩 달리는 수영에서도 1분51초37의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다.

이어 레이저 런에서도 큰 이변 없이 다른 팀의 추격을 뿌리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웅태는 UIPM과 인터뷰에서 “2022시즌은 우리 대표팀에 매우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항상 개인이 아닌 팀으로 함께 한다”고 말했다.

정진화는 “이집트 카이로는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금메달을 안겨준 특별한 국가다. 동료인 전웅태와 또 다른 우승을 거머쥐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여자 계주, 남녀 개인전, 혼성 계주에서 추가 메달을 노린다.

이슬비기자

박철순·이만수·백인천·김성한 1982원년 빛낸 KBO레전드 선정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을 빛낸 박철순(OB), 이만수(삼성), 백인천(MBC), 김성한(해태)이 KBO리그 40주년 기념 레전드 40인에 선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문가 투표(85%)와 팬 투표(20%)를 합산한 결과, 박철순이 11위, 이만수가 12위, 백인천이 24위, 김성한이 25위로 40인 레전드에 이름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KBO는 지난 16일 레전드 40인 중 최다 득표 레전드 4명 선동열(해태), 최동원(롯데), 이종범(KIA), 이승엽(삼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KBO리그 원년인 1982년 상징성 있는 기록과 활약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선수 4명을 공개했다.

‘불사조’로 불리는 박철순은 1982년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그가 작성한 22연승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다 연속 기록으로 남아있다.

박철순은 전문가 투표에서 156명 중 134명(86.72%)에게 표를 받았고, 팬 투표에서는 109만2432표 중 50만8173표(9.30점)로 총 78.02점을 획득, 40명의 레전드 중 11위에 올랐다.

‘할’ 이만수는 1982년 3월 27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MBC와의 KBO리그 개막전에서 1회 2루타를 날려 KBO리그 첫 안타와 타점을 냈다. 5회에는 담장 밖으로 타구를 보내며 KBO리그 첫 홈런이라는 역사를 썼다. 1984년에는 타율·홈런·타점 3개 부문을 석권, KBO리그 최초 타격 3관왕에 올랐다.

이만수는 전문가 투표에서 130표(66.67%), 팬 투표에서 52만9649표(9.70점)를 받아 총 76.36점으로 12위에 자리했다.

‘원조 타격왕’ 백인천이 1982년 기록한 타율 0.412는 40년간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40년 역사상 KBO리그 유일무이한 4할 타자이자 감독 겸 선수다.

그가 남긴 강렬한 인상은 전문가 투표 107표(54.87점), 팬 투표 30만3752표(5.56점) 총 60.43점, 24위라는 지표로 나타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KBO리그 40주년 기념 레전드 40인 중 원년을 빛낸 박철순·이만수·백인천·김성한을 공개했다. (사진=KBO 제공)

‘원조 이도류’ 김성한은 프로 원년 투타를 오가며 활약했다. KBO리그에서 한 시즌에 두 자릿수 승수(10승)와 두 자릿수 홈런(13개)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는 김성한이 유일하다. 김성한이 정규시즌 MVP 2회(1985-1988년), 골든글러브 6회(1985-1989년, 1991년)를 차지하며 해태에서 14시즌 활약하는 동안 해태는 7차례나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김성한은 전문가 투표 98표(50.26점), 팬 투표 49만9243표(9.14점)를 얻어 총 59.40점을 획득, 25위를 마크했다.

레전드로 선정된 선수들의 시상식은 전 소속 구단 홈 경기에서 진행된다.

김성한은 26일 광주 NC-KIA전, 이만수는 30일 대구 롯데-삼성전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박철순의 시상식은 다음달 13일 잠실 SSG-두산전에서 이뤄진다. 백인천에 대한 시상식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유럽행’ 황인범, SNS로 작별 인사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

유럽으로 복귀가 유력한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26)이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구단과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황인범은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K리그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이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기에 서울 엠블럼을 달고 뛰었던 모든 순간이 너무나 특별했다”고 적었다.

황인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특별 규정을 적용 받아 소속팀인 러시아 프로축구 루빈 카잔을 떠나 일시적 자유계약 신분을 얻어 올해 4월 서울과 단기 계약을 맺었다.

이어 FIFA가 러시아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와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1년 더 연장하자 서울과 동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유럽 구단의 러브콜을 받은 황인범은 고심 끝에 다시 도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 구단도 계약 연장 당시 황인범이 해외 이적을 원하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대회 도중 대표팀을 떠나 조기 귀국한 황인범은 그리스 명문 올림피아코스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다.

황인범은 “내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단이 부상이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영입해 준 데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며 “늘 응원해주는 분들이 더 많이 대신 것에 무한히 감사한다”고 했다. 이어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만료 후 재계약하고 댄 대구FC전까지, 서울에서의 선수 생활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로 기억될 것이다. 한 번이라도 더 많은 팬이 나와 함께 한 3개월을 기억해주신다면 좋겠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덧붙였다.



60승 선착 눈앞...SSG 정규리그 우승 확률 75%

SSG 8연승 질주...12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 도전

파죽지세의 SSG 랜더스가 정규리그 우승에 다가서고 있다.

SSG는 지난 2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쏘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원정 경기에서 5-4로 역전승을 거뒀다.

1회말 4점을 내준 SSG는 김강민과 전의산의 솔로 홈런으로 서서히 따라붙었고, 5회말 박성현의 2타점 적시타 등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막강 불펜진을 투입해 경기를 끝냈다.

SSG 외국인 투수 윌머 폰트는 6이닝 7피안타 4실점(2자책점) 투구로 12승을 올려 다승 부문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8연승을 질주한 SSG(59승 3무 26패)는 2위 키움 히어로즈(56승 1무 33패)와의 승차를 5 경기로 벌렸다.

SSG는 올해 자신들이 세운 최다 연승(10연승)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SSG는 시즌 60승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60승 선점 팀의 정규리그 우승 확률은 75%(32차례 중 24번·전후기리그, 양대리그 제외)이다. 또한 한국시리즈 우승확률은 59.4%이다.

지난 2010년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의 우승 이후 12년 만에 통산 4번째 페넌트레이스 정상을 노리고 있다. SSG로 팀명을 바꾼 이후 2년 만에 우승 도전이다.

SSG는 오는 26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3위 LG 트윈스(53승 1무 33패)와 상대한다.

SSG는 올 시즌 LG와의 상대전적에서 5승 4패로 앞서고 있다.

KBO 역대 한경기 한팀 최다 투수 출전 기록은?

23점차 패배 롯데, 투수 8명 투입...올해 최다 10명·역대 최다 키움 12명

안방에서 8명의 투수를 기용하고도 최악의 패배를 당한 롯데 자이언츠가 홈 팬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롯데는 지난 2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쏘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서 무려 26안타를 맞고 0-23으로 대패했다. KIA와의 3연전을 모두 패한 6위 롯데(38승 3무 47패)는 5할 승률에서 밀려 포스트시즌 진출이 더욱 요원해졌다.

이날 롯데는 8명의 투수를 투입했다. 야구는 투수 1명으로 경기를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투수를 소모하는 건 적을 수록 좋다.

이날 롯데 선발투수 글렌 스파크맨은 3이닝 9피안타 6실점으로 난타를 당해 패전투수가 됐다. 스파크맨에 이어 진승현(¼이닝 4피안타 5실점), 김민기(¼이닝 6피안타 5실점), 문경찬(¼이닝 4피안타 5실점), 강윤구(¼이닝 무실점)도 희생양이 됐다. 5회까지 4명의 투수가 21점이나 허용한 것도 희귀한 장면이다.

0-21로 뒤진 롯데는 더 이상의 실점을 막기

위해 경기 후반 필승조 김도규(1이닝 무실점), 최준용(1이닝 3피안타 2실점)에 마무리 김원중(1이닝 무실점)을 기용하는 강수를 쓰기도 했다.

필승조의 컨디션 점점자 등판이라고 하기에 도 애매했다. 대패한 경기에서 전력만 남비한 모양새가 됐다.

프로야구에서 많은 투수들을 투입하고도 패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지난 7월12일 NC 다이노스는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무려 10명의 투수를 투입하고도 7-11로 패했다. 올해 한경기 한팀 최다 투수 출전 기록이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4월21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9명의 투수를 기용하고도 2-5로 석패한 바 있다.

KBO리그 역대 한경기 한팀 최다 투수 출전 기록은 12명이다. 키움 히어로즈는 2020년 8월26일 수원 KT전에서 무려 12명의 투수를 넣

고도 5-6으로 패한 바 있다.

당시 선발 김재웅이 3이닝을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간 후 11명의 투수가 더 등판했다.